

‘로봇’ 국가첨단산업 지정 시동 “세계 최고수준 휴머노이드 개발”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휴머노이드, AI 대전환의 핵심
2027년 글로벌 최고수준 목표
내년 상반기 중 프로젝트 시작”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2027년 글로벌 최고 수준의 휴머노이드 개발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중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로봇을 반도체, 배터리 등에 이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며 “추후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경우 휴머노이드 등 로봇산업 발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머노이드(Humanoid)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로봇을 말한다. 최근 챗GPT 등 AI 기술 혁신으로 휴머노이드 관련 글로벌 투자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 경쟁도 치열하다. 올해 1월 골드만삭스는 2035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규모를 380억달러로 예측했는데, 이는 불과 1년여 만에 6배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엔비디아의 CEO 젠슨황은 “생성AI에 이어 물리(physical)AI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휴머노이드 등 로봇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정부가 휴머노이드 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 로봇 기업 지원에 본격 나선다. 로봇을 반도체·배터리 등에 이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사진)은 16일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학교 기업 에이로봇을 방문한 자리에서 “로봇 분야 ‘A/X(인공지능 전환)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해 2027년까지 휴머노이드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최고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박 차관은 “휴머노이드는 산업 AI 대전환의 핵심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미국, 중국 등이 대규모 선제 투자로 앞서나가고 있지만 우리도 인력과 기술력 등에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휴머노이드 A/X 프로젝트가 AI, 로봇, AI반도체, 부품 기업 등의

말하기도 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는 이제 AI·로봇기업이라며, 수년 내 대량 생산을 목표로 자사 휴머노이드 모델인 옵티머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전 세계가 휴머노이드에 주목하는 이유는 휴머노이드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산업과 경제, 나아가 개인 삶의 질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휴머노이드가 가진 고도의 인지·판단 능력은 산업현장의 생산성·안전·품질 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도 지난달 26일 대통령주재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산업의 AI 대전환(AI Transformation)을 위해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는 ‘산업 A/X 선도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내놨다. 산업부는 2027년까지 300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제조, 로봇, 디자인, 유통 등 각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AI와 AI반도체 등 신산업 성장동력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300개 프로젝트 중 가장 먼저 AI 자율제조 분야가 이번 달부터 시작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최태원-김문수, 노동시장 현황 논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만나 대내외적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개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은 김 장관의 ‘경제단체장 소통’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8월 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최 회장과 김 장관이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취업자 수 14만4000명 ↑… 증가폭 둔화

통계청, 9월 고용동향
건설업 부문서 10만명 줄어듬
60세이상에서 27만2000명 늘고
15~29세 청년층·40대 감소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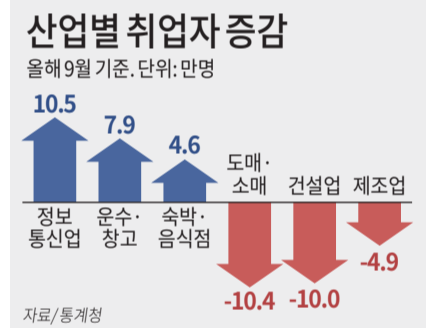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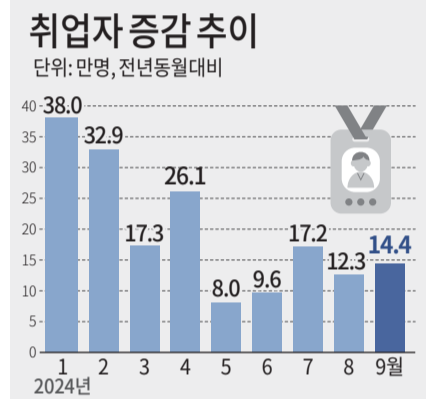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동월과 비교해 14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는 3개월째 10만 명대에 머물며 올해 초(1월, 2월) 30만 명대에 비해 둔화하는 흐름이다. 또 건설업 부문에선 1년 전보다 10만 명 감소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4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4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만4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43개월 연속 늘어났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및 올해 초와 비교하면 최근 증가 폭은 둔화했다. 지난해 8월 26만8000명, 9월 30만9000명, 10월 34만6000명, 11월 27만7000명, 12월 28만5000명 등을 기록한 뒤 올해 1~2월에는 30만 명대까지 폭이 확대된 바 있다.

지난달 건설업에서 10만 명 줄어들면서 2013년 10차산업 분류로 개정된 이래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5개월째 뒷걸음질했다.

도소매업 부문도 10만4000명 줄었다. 이는 지난 2021년 11월(-12만3000명) 이후 2년10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



다. 도소매업은 7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제조업도 4만9000명 줄며 석 달째 내리막길을 걸었다.

나이대별로, 60세이상에서 27만2000명 늘어나며 일자리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15~29세 청년층(-16만8000명)과 40대(-6만2000명)에서는 각각 감소를 기록했다. 15세이상 전체 고용률이 63.3%로 1년 전보다 0.1%p(포인트) 상승한데 반해, 청년층 고용률은 45.8%로 0.7%p 하락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8.8조 투입… 반도체 글로벌 주도권 확보”

최상목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내년까지 4.7조 규모 금융 지원
펀드에 1200억 투입, 4500억 공급



용 규모는 4조7000억 원이다. 지난 6월 중 합지원 방안 발표 후 지난 11일까지 8200억 원가량의 저리대출 자금을 공급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첫 번째 투자 기업으로 코아시아세미코리아를 선정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 12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총 4200억원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으로 1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저리대출 등을 위해 산업은행에 2500억 원, 펀드에 300억 원을 각각 출자한다. 연구개발에는 7000억 원, 인력양성에 5000억 원, 팹리스 사업화에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배달앱 관련 사회적 합의 과정도 언급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기 위

한 배달분야 상생 방안을 이달 내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불가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층 일자리 등 민생 관련 취약분야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부문별 고용 상황을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고, 어려움이 큰 부문에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과 관련해 그는 “최근 물가와 금융비용 부담 등 내수 제약요인이 점차 완화하고 있으나, 채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달 초 마련한 기업투자, 건설투자, 민간 소비 등 부문별 내수회복방안의 집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최전선의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듣고 내수와 민생 과제들을 계속 보완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청담글로벌, 뷰티매출 908억… 전체의 75%

» 1면 ‘K뷰티 돈보기’서 계속

해당 매장이 위치해 있는 온타리오 밀스 몰은 미국 캘리포니아 최대 쇼핑 센터 중 하나다.

실리콘투는 K뷰티 플랫폼 ‘스타일 코리아’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소비자도 공략한다. 차세대 K뷰티 주자로 글로벌 판로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도 올해부

터 ‘스타일코리아’에서 스킨케어부터 뷰티 디바이스까지 브랜드 핵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 ‘메디 큐브관’이 마련됐고 제로모공패드, 시카 제품군 등이 매진되기도 하는 등 실리콘투와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외 브랜드의 글로벌 유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청담글로벌도 K뷰티 성장세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다.

청담글로벌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12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뷰티&라이프 유통 사업 매출은 908억원으로 그 비중은 75%에 달한다. 특히 청담글로벌은 K뷰티의 중국 시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청담글로벌은 지난 8월 바이오 신소재 개발 전문기업 셀아이콘랩과 중국, 홍콩 독점 총판계약을 체결했다. 청담글로벌은 셀아이콘랩의 화장품 브랜드 ‘쥬디메르’ 제품을 향후 3년간 중국과 홍콩의 온·오프라인 채널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mlse236@

삼성전자, LED 철수… 메모리 등 재배치

» 1면 ‘위기의 삼성…’서 계속

한국CXO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3~4년 사이 CL3(차·부장급)에 해당하는 40대 이상 직원이 늘고 20대 직원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지난달부터 CL3 직급(차·부장급) 이상에 대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인건비 절감과 함께 사업체 고령화로 인한 기업 내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사업의 집중화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비핵심 분야인 발광다이오드(LED) 사업에서 철수하고, 기존의 LED 사업인력은 메모리와 파운드리에 재배치할 예정이다. 또 R&D 인력을 메모

리 공정 현장으로 투입해 전반적인 문제 진단을 하기로 했다. 파운드리 설계 등 비메모리 영역 또한 중요하지만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달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주최 행사에서 삼성전자가 처한 현 위기 상황에 대해 조직문화 변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전 장관은 “AI 기반 사업 환경에서는 나 혼자 잘해서는 안 되며 생태계 내에서 협력하는 문화가 중요하다. 조직 문화, 기업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삼성전자가 내부 유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생태계를 빠르게 조성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김서현 기자 seoh@